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뉴스레터 No.37 2017년 3월호

목차

- I 2018년 시장회의(후쿠오카시 개최에 관한 공지)..... 1
- II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연재 1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도시과제를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생각하다..... 2
- III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등록
(기타큐슈시·후쿠오카시 기고) 4
- IV 양곤시와의 자매도시체결(후쿠오카시 기고) 5

I 2018년 시장회의(후쿠오카시 개최에 관한 공지)

며칠 전 실시한 서면협의를 통해 제 12 회 시장회의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도시 후쿠오카시(일본)
 개최시기 2018년 8월 1일~3일 3일간
 내 용 시장회의, 환영리셉션, 시찰(후쿠오카 시내) 등
 회의테마 계속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이번 시장회의는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16년만에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의 제창도시인 후쿠오카시에서의 개최이며 또한 이번에는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와의 공동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후일 다시 연락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스케줄의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테마는 ‘계속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2015년 UN 지속가능한 개발 서밋에서 설정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목표 11 ‘계속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에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제3회 UN인간거주회의(해비타트III)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어젠다’도 프로그램에 담을 예정입니다.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OSDGs란?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새로운 도시 어젠다

○새로운 도시 어젠다 전문(영어)

http://nua.unhabitat.org/uploads/DraftOutcomeDocumentofHabitatIII_en.pdf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뉴스레터 2016년 12월호의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 (연재 12)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의 과제를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생각하다

UN 해비타트는 주거와 환경 등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세계의 많은 도상국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에는 사업 실시 외에도, 도시정책 및 계획에 대한 조언이나 현재화된 과제에 대한 정보 공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도시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 환기와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소개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활동 중에서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보 공유 및 과제 제안과 새로운 기술 소개에 관한 2가지 활동 — 아시아태평양도시저널리스트회의, 환경전문가 회의 —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아태평양저널리스트회의는 아시아 지역의 도시문제에 대해 아태 지역 저널리스트들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으로 2007년 8월에 처음 개최되어 2016년 9월에는 11회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 11회 회의에서는 ‘계속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바람직한 도시재생~’이라는 테마로 7개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몽골, 태국, 베트남)의 저널리스트들이 후쿠오카시에 모여 각국의 환경, 교통, 인프라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진 사례를 시찰하고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며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부터 단지 주민의 고령화에 대한 의견 교환,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직면하고 있는 동네시찰과 지역주민과의 의견 교환)

선진 사례 시찰 후에 열린 회의에서는 각국이 안고 있는 저마다 다른 도시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시아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고령화 문제가 아시아의 공통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각국의 저널리스트들은 귀국 후 자국 매체를 통해 회의 상황 및 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다루며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해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여론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편, 환경기술전문가회의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도시 대표자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을 소개하는 회의로 2016 년 11 월에 8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생각하다’를 테마로 회의가 열려 베트남에서는 건설성, 탐키시, 칸토시, 다낭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베트남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자연환경적으로도 문화적, 산업적으로도 많은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 어느 도시나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홍수 대책,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 시스템과 주택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에는 빗물 저수기술, 물의 진입을 막는 방수기술, 내구성이 높은 맨홀, 기상 데이터로 자연재해의 발생을 예측하고 알리는 기술, 인체와 환경에 좋은 냉난방기술, 주택정비계획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일본 기업의 설명을 듣고 베트남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방수벽 설치 시범, 회의에서의 기술 설명 모습, 베트남 탐키시 부시장의 발언 모습)

베트남측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소개된 각 회사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입할 때의 환경 조건과 제품 성능, 설치 비용, 기술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각 회사와 각 도시의 개별 미팅 시간을 통해 더욱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후 베트남에서 실증 실험과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소개된 기술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해 10 월에는 20 년에 한번 개최되는 인간거주에 관한 UN 회의(해비타트Ⅲ)가 개최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침 ‘새로운 도시 어젠다’가 채택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NGO·NPO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UN 해비타트는 다양한 관계자와 연계해 가면서 정보 공유, 과제 제기, 계발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시조성을 위해 힘써 가고자 합니다.

2018 년에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시장회의에서도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정보, 노하우들을 참가도시 여러분들과 공유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제 11 회 아시아도시저널리스트 회의에 참가한 기자가 자국에서 보도한 기사(영문기사만 소개)
 (상하이 일보/ 중국:Shanghai Daily)

<http://www.shanghaidaily.com/opinion/chinese-perspectives/Journalist-conference-highlights-challenges-faced-by-cities-in-dealing-with-urbanization/shdaily.shtml>

<http://www.shanghaidaily.com/opinion/chinese-perspectives/Rediscovering-the-usefulness-of-the-elderly-can-help-us-better-understand-urban-woes/shdaily.shtml>

(베트남 뉴스/베트남:Viet Nam News)

<http://vietnamnews.vn/world/343838/un-releases-document-on-human-settlement-and-urbanisation.html#uwpuqvyyu2vtgEYxk.97>

(힌두스텐 타임즈/인도:The Hindustan Times)

<http://www.hindustantimes.com/delhi/lessons-from-japan-on-caring-for-the-capital-s-elderly/story-5I0YGXVjp9GqsgplXhTwHL.html>

2015 년까지의 환경기술전문가회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ukuoka.unhabitat.org/kcap/index.html> (일본어)

http://www.fukuoka.unhabitat.org/kcap/index_en.html (영어)

Ⅲ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에 대해(기타큐슈시 · 후쿠오카시 기고)

2016 년 11 월, 기타큐슈시의 국가지정중요무형민속문화재 ‘도바타기온오야마가사 행사’를 포함한 전국 18 개 부와 현의 33 개의 축제로 구성된 ‘야마, 호코, 야타이 행사’가 UN 교육과학문화기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약칭 U.N.E.S.C.O)의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큐슈에서는 이밖에도 ‘하카타기온야마카사 행사(후쿠오카시)’, ‘가라쓰쿤치노히키야마 행사(사가현 가라쓰시)’, ‘야쓰시로묘켄사이노신코 행사(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히타기온노히키야마 행사(오이타현 히타시)’가 동시에 등록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예능, 사회적 습관, 제례행사, 전통공예기술 등의 보호와 중요성에 관한 의식 향상을 위해 등록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부키, 아악, 화지 등 22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바타기온오야마가사 행사는 1803 년에 지방에서 유행하던 역병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1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향토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입니다. 낮에는 깃발을 꽂은 노보리아마카사가, 밤이 되면 조칭야마카사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 특징적으로 후쿠오카현 여름의 3 대 축제 중 하나로 ‘조칭야마’라는 애칭으로 친숙합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하카타기온아마카사’는 776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축제 기간 중에는 매년 300 만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후쿠오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7 월 1 일부터 15 일까지 후쿠오카 시내 14 곳에 높이 10 미터가 넘는 ‘가자리아마’가 들어서고, 1 톤이나 되는 ‘가키야마’가 하카타의 거리를 질주하면 거리는 축제 분위기 일색이 됩니다.

하카타 기온아마카사는 7 월 1 일의 가자리아마 공개 및 청정한 모래로 몸을 정화하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오시오이토리’ 의식으로 시작되는데 10 일의 ‘나가레가키’를 시작으로 ‘가키야마카사’가 등장합니다.

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15 일 이른 아침에는 ‘오이아마카사’가 시작되는데 여름의 태양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오전 4시 59분에 북소리가 울리면 5분 간격으로 하카타의 사나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끝인 지점을 향해 달려 나갑니다.

새벽의 하카타 거리를 ‘오잇사 오잇사’라는 구호와 함께 약 5km 의 코스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축제는 피날레를 맞이합니다.

보는 사람도 함께 감동에 젖을 수 있는 축제, 그것이 바로 하카타기온아마카사입니다.



IV 양곤시와의 자매도시체결(후쿠오카시 기고)

후쿠오카시는 수도정비 지원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하여 2016 년 12 월 7 일에 양곤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미얀마의 도시가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곤시 소개>

미얀마는 130 개 이상의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8 년부터 1989 년까지는 국명을 주로 버마 연방이라 칭했습니다.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랑군에서 개칭된 양곤시의 인구는 521 만명(2014년), 면적은 59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양곤시는 2016 년까지는 수도였으며, 지금도 미얀마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황금 불탑(파고다)이 빛나는 불교 사원에서는 양곤 시민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연 진주, 보석, 대나무 및 등나무 제품, 잡화 등 미얀마 각지에서 좋은 물건이 모이는 ‘보족아웅산마켓’과 양곤시의 청사 등 영국 통치 시절의 건축물도 볼거리입니다.



쉐다곤 파고다



보족아웅산마켓

<양곤시와의 교류>

후쿠오카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누수율을 자랑하는 수도정비 기술이 있어 2012 년에 JICA(국제협력기구) 전문가로서 공무원을 양곤시에 파견하여 수도 분야의 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 ‘도시 조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양곤시 직원의 기술 연수를 받는 등, 교류를 촉진하여 2015년에는 양곤시에서 실시하는 상수정비준비조사의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을 관민이 연계하여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양곤 헤리티지 재단 회장인 탄민우 씨가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류가 깊어져 같은 해 8월에 미얀마국 정부대신과 양곤시로부터 자매도시체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JICA(국제협력기구) 전문가로 후쿠오카시 직원을 파견



2015년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 대상 수상자 탄민우 씨



자매도시 체결식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역사적 건축물과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양곤시와 우호관계를 구축하여 더욱 단단한 유대를 맺는 것은 후쿠오카시에도 장차 큰 재산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의 자매도시는 미국의 오클랜드시, 아틀란타시, 중국의 광저우시, 프랑스의 보르도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말레이시아의 이포시, 한국의 부산광역시 등이 있으며 양곤시는 8 번째 자매도시입니다.

앞으로 양곤시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민간을 포함한 활발한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교류를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회원 도시 담당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의 토픽, 신규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보내주세요.

(뉴스레터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회원 도시에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의 일정

개최시기	회의명	개최도시
2018년 8월 1일~ 3일	제 12 회 시장회의	후쿠오카시(일본)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Asian-Pacific City Summit)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회의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도시의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원도시 (13 개국 30 개 도시)

오클랜드 시(뉴질랜드)	가고시마 시(일본)
방콕도(타이 왕국)	기타큐슈 시(일본)
브리즈번 시(오스트레일리아)	쿠알라룸푸르 시(말레이시아)
부산 광역시(대한민국)	구마모토 시(일본)
창사 시(중화인민공화국)	마닐라 시(필리핀 공화국)
다롄 시(중화인민공화국)	미야자키 시(일본)
후쿠오카 시(일본)	나가사키 시(일본)
광저우 시(중화인민공화국)	나하 시(일본)
광양 시(대한민국)	오이타 시(일본)
호치민 시(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포항 시(대한민국)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	사가 시(일본)
호놀룰루 시(USA)	상하이 시(중화인민공화국)
이포 시(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화국
자카르타 특별시(인도네시아 공화국)	우루무치 시(중화인민공화국)
제주 특별자치도(대한민국)	블라디보스톡 시(러시아 연방)

【편집·발행】 2017년 3월 31일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810-8620 후쿠오카 시 주오 구 덴진 1-8-1
 TEL: +81-92-711-4028 FAX: +81-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han/>